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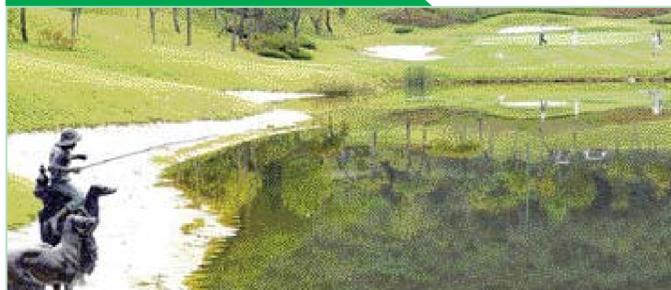
왕가의 품격이 묻어나는 '클럽하우스'



최상급 제니스 잔디 파종 상쾌한 라운딩



경관을 그대로 살린 자연 친화적 코스



# 명품 골프장 담양다이너스티CC 6월 1일 개장 자연을 닮은 그린...왕가의 기품을 느끼다

담양다이너스티CC의 가장 큰 특징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차별화된 코스와 최고급 시설이다.  
또 10년 이상 된 골프장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최상의 자연친화적 골프장으로 건설됐다. 표고 200m의 완만한 구릉지의 이점을 살려 자연스럽고, 코스별로 다양한 묘미와 특성, 추월산으로 둘러싸인 대자연의 경관까지 함께 체험이 가능하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눈 사람 형태 코스(실제는 페어웨이가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지만 티잉그라운드에서는 좁게 보여 부담감을 줌으로써 묘미를 더해주는 코스)'로 꾸며져 있는 것도 담양다이너스티CC만의 매력이다.  
여기에 페어웨이의 잔디는 최상급인 타 골프장보다 짙어 우수한 제니스를 파종하여 로우랜드를 위한 고급케어웨이를 조성하였고, 그린은 벤프그라스 열 9종을 식재해 골퍼들의 고난도 퍼팅감각이 요구돼 호남지역에서는 맛보지 못한 골프의 묘미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년 유럽 왕가의 명예로운 품격을 느끼며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소수 정예, 최고품격의 담양다이너스티CC가 다음달 1일 개장된다.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산 79번지 일원에 18홀(표고72.6천384m)로 조성된 골프장은 제주 나인브릿지와 용평 버치힐CC 전체 정산CC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명성의 로널드 프레임(Ronald Fream)이 코스를 설계, 해발 200m의 완만한 구릉지에 코스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특성을 한껏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여 체재형 골프와 휴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기존의 골프장과는 다른 품격을 갖추었다.  
라운딩 후 피로를 말끔히 씻어줄 온천시설은 실내와 실외로 구성된 다양한 휴식을 제공한다. 실내 코스를 전망할 수 있도록 육조 전면에 대형 창을 설치했으며 실외 온천은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각을 설치, 온천 있는 휴식을 선물한다.  
집근성은 전국 어느 골프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담양다이너스티CC만의 최고 매력이다. 담양읍에 위치한 담양다이너스티CC는 동광주IC에서 10분, 광주 시내에서 15분, 순천과 광양에서 40분대, 서해안고속도로 연계 등으로 고천IC를 통하여 영광과 근산지역은 40-5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담양다이너스티는 오는 6월 1일 성대한 그랜드오픈식을 가지며 전국 최고의 명품 골프장 태동을 알린다.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전남 담양의 추월산 자락에 자리 잡은 담양 다이너스티CC

제주 나인브릿지 설계 로널드 프레임 작품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눈사람 코스' 눈길  
벤프 그라스 위의 고감각 퍼팅 골프묘미 느껴

두바이 칠성급 호텔을 옮겨놓은 클럽하우스  
고품격 VIP 골프텔 체류형 골프의 명가로  
동광주 IC에서 10분 거리 최고의 접근성

제니스 잔디는 열매가 짙고 밀도가 높아 골퍼들을 반겨주는 힘이 강한 게 장점이다. 녹색기도 일반 잔디인 '종지'보다 연간 40일을 더 유지하기 때문에 항상 푸른 잔디에서 라운딩이 가능하다.  
골프장 주변 경관은 뒤편으로 추월산이 자리잡고 있고 주변은 담양호와 금성산성 등이 위치해 있다.  
이와 함께 광주는 물론 타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 골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랜드오픈 후 명문 골프장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탈것으로 전망된다.  
담양다이너스티CC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자 안권은 전국 최대 규모, 최고급 설비의 클럽하우스다.

건평 2천 585평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 외관은 영국 왕실의 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고, 내부는 중동 두바이의 7성급 특급호텔 내부와 카자흐스탄 대통령궁 설계로 이름을 떨친 세계적인 인테리어 설계자 안드리아 비세고와 마쓰모 비고나가 이름을 걸고 꾸몄다. 클럽 하우스 내부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나뭇결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연티가구 등 모두 이태리 최고급 수입가구들로 꾸며져 특급호텔의 안락함과 휴식을 보장한다.  
일반 골프장에는 없는 대형 연회장도 눈에 띈다. 모두 4개의 연회장이 있는데 대형 연회장은 최대 1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와 용도로 연회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클럽하우스내에 숙박 골프가 가능한 골프텔 20실, VIP 스위트룸 등을 구비하

는 원초적인 수림과 계곡, 농선과 계류 등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살리며 골퍼가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고감도 컨셉을 바탕으로 건설되었다. 또한 이태리 컨셉의 럭셔리 클럽하우스는 이미 골퍼의 입을 오르내리며 호남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 최고라는 담양의 먼거리 문화가 녹아있는 음식과 요리들도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호텔급 이상의 세련된 서비스는 고객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드 레저리즘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담양 다이너스티는 소수정예 회원제의 품격에 맞게 비즈니스 환경에 맞춘 정회원권을 분양 중이다. 퍼스트 클래스(무기명 법안, 10억), 플래티늄(5억 5천), VIP(2억 8천)의 정회원은 호남 제일의 하이클래스의 회원권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5월에 출시된 주중회원은 3주만에 마감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유럽식 품격이 흐르는 '비즈니스룸'



런던 이미지를 담은 '서클룸'



라운딩 후 피로를 씻는 '스파시설'

